

CJ, '더 CJ컵 바이런 넬슨' 준비 만전... "K-푸드 가치 전달"

(PGA 투어 정규 시즌대회)

10년간 바이런 넬슨 타이틀 스폰서 비비고 제품 활용 선수식사 제공 현장 방문인원 대상 컨세션 운영

PGA 투어 정규 시즌 대회이자 156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풀-필드 대회인 '더 CJ컵 바이런 넬슨' (총 상금 950만 달러)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2일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에 위치한 TPC 크레이크 랜치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우승자에게 우승 상금 이외에 페덱스컵 포인트 500점과 2년의 투어 시드 그리고 당해 년도 시그니처 대회 출전 자격이 부여된다.

CJ그룹은 지난해 9월 계약을 통해 2024년부터 10년간 바이런 넬슨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는다. 이에 '더 CJ컵'은 PGA투어에서도 유서깊은 대회로 새롭게 태어났다. 특히 2017년부터 쌓아온 '더 CJ컵'의 대회 유산과 PGA 투어 최초의 선수의 이름을 딴 대회인 바이런 넬슨의 전통이 융합되며, 선수와 팬 모두에게 최고의 골프 축제로써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 CJ컵 바이런 넬슨은 선수와 팬들이 K-Food를 경험하고 전 세계에 비비고 브랜드를 알리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CJ그룹

'더 CJ컵'은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3년간 클럽 나인브릿지(제주)에서 개최됐고, 이후 3년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네바다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열렸다. 올 해부터는 바이런 넬슨과 함께 새로운 대회로 변모한 만큼 '더 CJ컵'의 유산을 '더 CJ컵 바이런 넬슨'에 최대한 계승해 전통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더 CJ컵 바이런 넬슨'은 1944년 시작된 달러스 지역의 대표 대회로 1968년부터 PGA 투어 레전드 바이런 넬슨

의 이름을 딴 대회로 진행되었다. 이 대회는 텍사스주 달러스 지역의 비영리 단체인 달러스 세일즈맨십 클럽이 주최하며, 이경훈, 강성훈, 배상문 등 한국 선수가 4번 우승을 하며 국내에 잘 알려진 대회이다.

특히 CJ소속 이경훈은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우승하며 대회와 깊은 인연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호주의 제이슨 데이아가 PGA 투어에서 5년 만에 다시 우승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더 CJ컵 바이런 넬슨'은 그간의 'P

GA 투어 맛집'으로 정평이 나있던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PGA 투어 선수와 전세계 골프 팬들이 한식을 경험하고, 나아가 비비고가 전세계인에게 명실상부한 'K-푸드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출전 선수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플레이어스 다이닝'에서 비비고 브랜드 제품을 활용한 요리를 제공해 K-푸드의 매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탄생한 '더 CJ컵 바이런 넬슨'을 기념해 새로운 메뉴도 선보일 예정이다. 메뉴 선정에는 한국 팬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CJ 그룹은 현장을 방문하는 전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을 선보이고 맛볼 수 있는 '비비고 컨세션'도 운영하며 비비고 주력 제품인 만두를 비롯해 다양한 한식의 맛을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비비고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통해 '한식으로 더 맛있는 일상'을 뜻하는 'Live Delicious'의 가치를 전달해 K-푸드 세계화에 한층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제품 소식

스타벅스코리아 "쁘띠 까눌레" 맛보세요

스타벅스코리아가 차별화 상품으로 한입 사이즈의 미니 디저트 '쁘띠 까눌레'를 오는 4일부터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쁘띠 까눌레는 이름처럼 작은 크기로 기획된 핑거푸드로 자연방사 유정란과 바닐라 럼을 활용하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전통 레시피로 만들어진 상품을 현지에서 직접 들여온 것이다.

해당 상품은 달콤한 바닐라 향과 짙게 씹히는 맛이 일품으로 식감 극대화를 위해 매장에서 한 번 더 구워낸 후 진열된다. 또한, 최상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매장당 하루 최대 50개까지만 한정 판매된다.

/신원선 기자

대응계약

'에너지씨슬' 와다다곰 콜라보

대응계약이 인기 캐릭터를 적용한 한정판 상품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대응계약은 '와다다곰'과 협업해 고급 비타민 '에너지씨슬 퍼펙트샷 봄 피크닉 콜라보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와다다곰'은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곰 캐릭터 이모티콘이다. 대응계약은 '지치지 말고 봄 피크닉 가자!'를 주제로 와다다곰이 그려진 피크닉 매트와 피크닉 가방을 선보인다.

피크닉 매트는 올리브영 온라인 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에너지씨슬 퍼펙트샷 이온플러스 8개입을 구매하면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에너지씨슬 퍼펙트샷 10개입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피크닉 가방이 제공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원그룹, 자체 AI 플랫폼 도입... '데이터 기업' 새도약

GPT 4.0 기반 AI 플랫폼 개발 데이터 분석 등 생산성 향상 기대

동원그룹이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 '동원GPT'를 도입하고 업무 혁신에 나섰다 2일 밝혔다.

'동원GPT'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GPT 4.0'을 기반으로 하는 AI 플랫폼이다.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은 물론 인사, 총무 등 사내 정보 검색도 가능하다. 그룹 사내 인트라넷에 설치돼 내부 정보의 유출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임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동원그룹은 각 사업별 업무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임직원 맞춤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동원GPT를 고도



동원그룹이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 '동원GPT'를 도입하고 업무 혁신에 나섰다. /동원그룹

화할 예정이다. 또한 ERP(전사적자원 관리), MES(생산관리시스템) 등 그룹 시스템과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그룹이 보유한 고객 및 판매 정보를 기반으로 신제품 전략 등을 도출하

고, 최고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 결정을 돕는 '경영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중심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동원그룹은 동원GPT 도입에 앞서

임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실무 직원뿐 아니라 김남정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들도 참여했고, GPT 활용법부터 현업 적용에 이르는 과정을 직접 실습했다. 직원들의 GPT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김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박종성 동원산업 DT본부장은 "오는 상반기까지 전체 사무직원의 약 25% 이상이 실습 과정을 이수해 연간 약 15만 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를 그룹의 사무 생산성 향상에 있어 중요한 한 해로 설정하고, 디지털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오뚜기, 스콘 등 베이킹믹스 라인업 강화

홈베이킹 트렌드 맞춰 경쟁력 확보

오뚜기가 '홈베이킹'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베이킹 믹스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1971년 '핫케이크가루'를 출시하며 베이킹 믹스 시장의 포문을 연 오뚜기는 에어프라이어로 만드는 '파운드케이크믹스', '스콘믹스' 등을 잇달아 선보이며 제품을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오뚜기는 별도의 제빵 도구 없이 손쉽게 파운드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파운드케이크믹스' 2종을 선보였다. '얼그레이 파운드케이크믹스'는 얼그레이 향차분말을 첨가해 은은한 향을 살렸으며, '레몬 파운드케

이크스'는 레몬과즙분말로 새콤달콤한 맛을 더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스콘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지난해 연말 오뚜기가 커피·베이커리 브랜드 '프린츠'(Frietz)와 손잡고 선보인 '오뚜기 x 프린츠 스콘믹스'는 계란과 버터만 있으면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이용해 전문점 못지않은 스콘을 완성할 수 있다.

우유나 물, 계란, 식용유만 있으면 부드러운 핫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오뚜기 '핫케이크믹스'도 있다. '핫케이크믹스' '쫄쫄 핫케이크믹스' '쌀 핫케이크믹스' 3종이며, 해당 제품은 와플, 스콘, 계란빵 등으로 응용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퓨어시스템-에이디주' 치료목적 사용 승인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강스텝바이오텍 "이달 중순경 환자투약 예정"

강스텝바이오텍은 2일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시스템-에이디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중인 의약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금번 사용승인은 기존 항체치료제 사용에도 전혀 반응이 없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 신청했다. 의료 현장에서 퓨어시스템-에이디

주의 투약이 결정된 만큼 신약에 대한 필요성과 환자에 따라 약물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해당 병원이 3상 임상시험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퓨어시스템-에이디주의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외의 신뢰와 기대감 또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퓨어시스템-에이디주 임상 3상에 대한 톱라인 데이터는 6월 내 확보될 예정이며, 연내 품목허가를 신청하여 2025년 하반기 제품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강스텝바이오텍 관계자는 "퓨어시스템-에이디주의 치료목적 사용이 승인됨에 따라 4월 중순경 환자투약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울 '어린속 한정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어린속' 이슬로 작가 한정판

아모레퍼시픽이 작가 이슬로와 협업해 소비자들에게 클린뷰티 브랜드 가치를 강조할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클린뷰티 브랜드 '한울'에서 이슬로 작가와 협업한 어린속 한정판 제품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슬로 작가는 이러한 어린속의 힘에서 영감을 받아 작가 특유의 따뜻한 색감과 친근한 그림체로 '어린속 요정 쑥꼬미'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이번 한정판은 전국 올리브영 매장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이청하 기자